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선

2020년 8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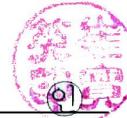
김 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김 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정 환 

위 원 최 보 영 

위 원 김 성 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김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진로준비행동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의 4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된 578부 중 불성실하거나 중복응답 등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5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하여 이명숙(2003)이 수정한 진로준비행동 척도, Betz, Klein & Taylor(1996)가 개발하고 조아미(2000)가 변안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Osipow, Carney, Winer(1980) 등이 개발하고 고향자(1992)가 변안한 진로결정검사 척도 CDS(Career Decison Scale)를 사용하

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 R 3.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상관분석, 매개효과 분석 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정보준비행동과 도구준비행동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적극적인 대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진로결정수준도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과 개별 맞춤형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진로선택과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에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3. 연구모형	7
4.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진로준비행동	10
가. 진로준비행동 개념	10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2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	12
3. 진로결정수준	14
가. 진로결정수준 개념	14
4. 연구변인 간 관계	16
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16
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17
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20
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21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및 절차	23
2. 측정도구	25
가. 진로준비행동 척도	25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26
다. 진로결정수준 척도	27
3. 자료처리 및 분석	28

IV. 연구결과 및 해석	29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29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31
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3
4. 대학생의 진로분비행동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5
가. 대학생의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5
나. 대학생의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7
다. 대학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8
V. 논의 및 제언	39
1. 결과 요약 및 논의	39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43
VI. 참고문헌	45
Abstract	53
부록	56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3
표Ⅲ-2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Ⅲ-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Ⅲ-4 진로결정수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Ⅳ-1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기술통계	29
표Ⅳ-2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32
표Ⅳ-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3
표Ⅳ-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5
표Ⅳ-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37

그림 목 차

그림 I -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수준의 매개모형	7
그림 IV-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수준의 매개효과	34
그림 IV-2 대학생의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수준의 매개효과	36
그림 IV-3 대학생의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수준의 매개효과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전공과 적성이 일치하여도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진로준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쉽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대학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고민 1순위는 ‘졸업 후 진로’가 60%로 나왔으며, 졸업 후 진로로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대학생은 62.4%, 아직 잘 모르겠다가 22%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적성과 기대에 맞지 않아 퇴사하는 조기 퇴사자도 증가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2019년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사이트 알바몬에서 공동으로 전국 4년제 대학생 1,831명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6%가 아직도 진로를 결정하기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공 계열별 분석결과는 사회과학계열 51.7%, 인문계열 50.6%로 타 전공자들에 비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중운, 박성실(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와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 등 다양한 이유로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에서 2019년 대학생 1,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 휴학생 3명 중 1명은 휴학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학을 결정하는 이유로는 ‘취업준비 25.0%, 인턴십 및 사회경험 24.0% 등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휴학 기간은 평균 1년 이상 ~ 2년 미만 31.4%로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년 이상 ~ 5년 미만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를 통해 매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로준비 및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경필, 고정리(2018)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진로결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준비행동 등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이민옥, 2018).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진로 경로 및 진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정윤경, 2019),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하여 대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상담 및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행동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진로준비행동은 주로 종속변인으로 연구가 되어왔다(김옥경, 2018). 즉,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차원의 변인이 진로 목표 및 성과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실제적인 행동차원에서의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사회에 진출하려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오은주, 2014). 진로준비행동은 개인 자신의 삶에서 꿈을 이루고,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활동으로(정유선, 박미연, 2017), 진로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말한다. 또한, 진로결정을 위해 노력의 정도, 결정된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적, 환경적, 진로와 관련된 인식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현재, 2014). Roenkae와 Pulkkinen(1995)는 진로준비가 부족할수록 사회생활에 부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백인선(201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는 청년층의 사회진입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진로준비를 인지하여 사회로 진출하기 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과제를 통해 확실한 진로결정과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어떠한 요인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 진로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을 언급한 사람은 Hackett & Betz(1981)이다. 진로 결정을 위해 전반적인 계획을 토대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 하며,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따른 신념이나 유능감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체험적인 경험에 의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에서 진로체험의 필요성이 있다(이종찬, 2013).

김주현(2018)의 진로준비행동 촉진 집단상담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도록 한 연구에서 실험집단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진로를 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이레(2010)의 연구에서 목표 선택과 정보수집활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보수집활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정은희(2013)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평가와 정보수집활동이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정보수집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사들은 진로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참여하여 정보수집행동과 도구준비행동의 다양화를 갖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도구 개발의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은 시기지만,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김헌수, 장기명, 이난, 2004).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로결정수준이다(백인선, 2018).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결정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Wanberg & Munchinsky, 1992)보다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 후, 일과 관련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 또한 Betz와 Voyten(1997)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에 대한 의도가 높으며,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Bullock-Yowell, Andrew와 Buzzetta(2011)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따라 설정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진로에 대한 준비가 빠를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았다(김정화, 2012). 또한, 김이지, 정신영, 김지애, 김지윤, 이동귀(2011)의 연구에 의해, 어떤 진로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구체적 탐색, 정보수집, 계획수립, 목표 체계화하여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 활동과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제공하고, 진로결정에 대해 성공의 확신성을 함께 제시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결정의 신념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및 진로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지

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진로준비행동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맞춤 진로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지도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 및 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후 진로결정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목표달성 실천노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I-1의 연구모형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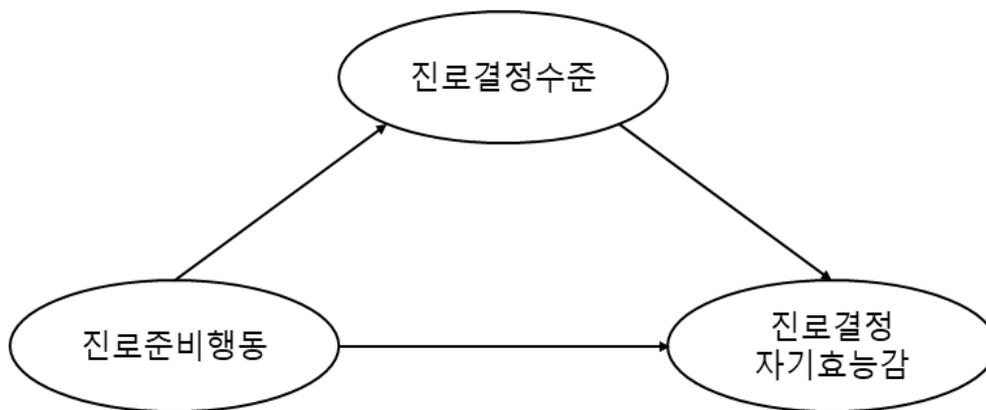


그림 I-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 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합리적 진로결정을 위해 수반되는 행동을 말하며, 진로결정 이전의 행동과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후의 행동 모두를 말한다(백인선, 2018).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을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도구준비활동,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실천적인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이명숙(2003)이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Hackett & Betz, 1981). 또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 즉 진로선택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개인적 확신성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국내 연구에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계획, 실행, 평가를 스스로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라 정의하였다(이종찬, 2013). Betz, Klein & Taylor(1996)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인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조아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고, 자기평가,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개인의 진로와 취업 선택 등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Harren, 1979), 이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이상길, 2008). 또한 진로결정과 미결정의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을 의미한다(강신영, 2011). Osipow, Carney, Winer(1980)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 CDS(Career Decison Scale)를 고향자(1992)가 우리 문화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진로 및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진로 미결정 정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준비행동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란 진로결정에 앞서 정보를 수집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전반적인 행동을 말한다(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며,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오은주, 2014). 이외에도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 구직행동 등이 있으며(이혜정, 2017),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활동,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진로상담 분야에 처음 제기하면서 인지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과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박수현, 2015). Super(1979)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와 관련된 인지과정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실질적 행위라 정의하였고, Phillips & Paziienza(1988)는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된 행동과 실천의 행동을 말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이라 정의하였다.

김봉환(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수집행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인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직업 현황, 전망, 입사방법, 자격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 포괄적인

정보를 말한다. 둘째, 도구준비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또는 교재 등을 구입하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 상호작용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진로준비행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김계현(2001)은 진로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자기 발견과 진로 탐색을 위한 행동과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이분화하여 설명하였다. 김선중(2005)은 합리적 진로결정을 위해 행동이 필수적이며, 진로결정 후에도 결정된 진로에 대한 후속행위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활동으로 구분하였다(김명희, 2016). 박윤아(2011)는 진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거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목표를 세워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진로교육에서도 긍정적인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진로를 결정하는 인식적이고 태도적인 측면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수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과 확신성으로 정의된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에서 시작되며,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 Bandura(1977)의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성공을 경험한 개인이 한 가지 성공경험 영역에만 제한되거나 혹은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더욱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자원을 선택하고 통합발달이 가능하다.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개인의 행동과 행동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와 관련된 결정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로결정 및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개인의 진로선택과 관련 있는 효능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행동과 노력을 결정하는 과정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인 효능기대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 즉 특정 행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결과기대로 설명된다. 한편, Hackett & Betz(1981)에 의해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되었다. 이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처럼 후천적 경험과 노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과 관련 있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였다. 이후 Taylor & Betz(1983)에 의해 5개의 하위요인과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며, 개인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Betz, Klein & Taylor(1996)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25개의 문항으로 축소 개정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이현주(2000)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하며, 전공 및 직업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라 하였다(김현희, 2015). 이성식(2007)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거라 확신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김민순(2004)은 개인의 미래 직업에 대한 확신과 결정이 관련 있다고 보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백인선(2018) 연구에서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3. 진로결정수준

가.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 개념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진로결정은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미결정은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결정과정에서 진로에 대해 확고하지 않을 때의 결정을 의미한다(이성애, 2005).

Crites(1978)는 개인이 특정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을 진로결정이라 하였으며, 개인의 진로결정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진로미결정이라고 의미한다. 또한 Gati, Krausz & Osipow(1996)은 진로결정을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로결정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으며,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결정에 대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을 진로결정과 양분된 변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제안되고 있으며(Larson, Heppner, Han & Dugan, 1988),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연속적인 차원으로 보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최화영, 2015).

국내에서 진로결정수준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 사이의 어느 한 지점이라 하였다(김봉환, 1997). 또한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의 진행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결정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임은미, 장선숙, 2004).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은 일반적으로 현재 개인이 겪고 있는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다는 것을 진로를 결정 했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조경애(2005)는 바람직한 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시기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홍미진(2012)은 진로결정수준을 개인이 진로를 확정하기 전 단계의 수준이라 하였으며, 김현희

(2016)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으로 진로방향성을 설정하고, 진로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신하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선행연구결과 진로결정수준을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 사이로 진로방향성과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백인선, 2018), 진로결정 수준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민옥,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을 대학생들이 자신의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할 수 있다.

4. 각 변인과의 관계

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를 탐색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진로준비행동이라 정의하였다(김봉환, 1997). 이는 자신의 능력·적성·흥미·성격에 관한 정보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설정한 진로목표에 도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황선미, 신현숙, 2007).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더라도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경우와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은 경우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경우가 존재하므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 각각의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이상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미비하다. 임은미(2011)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진로결정변인이 진로행동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손은령, 손진희, 2005).

진로준비행동의 유사개념인 진로탐색 집단프로그램이 진로를 결정에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고대석, 2002), 이는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봉환, 김계현(1997)은 대학생의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에서 인지나 태도적 측면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중요시하며 이를 향상시키고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법 및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진로결정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행동과 진로결정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김지희, 2017).

전미리, 김봉환(2015)은 ‘사회 인지 진로 이론’적 관점에서 취업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을 직접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검증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키며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진로상담 교육과정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정, 홍지영(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이 진로결정 몰입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이 검증되었으며,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결정 몰입도가 높아지며 진로결정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패러다임 모형은 취업준비행동으로 인해 진로결정수준의 변화가 일어남을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로선택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진로교육, 진로 및 취업정보,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일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김봉환, 1997). 박완성(2002)은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최동선(2003)은 직업이나 일,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효율적인 진로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조현재(2014) 연구에 따르면 전공만족도, 취업가능성이 높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리더경험과 진로사이트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진로 및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진로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연관된 개념상 유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lustein(1989)은 진로 의사결정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Bandura(1997)는 의사결정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선택과 계획을 돕는 탐색적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Betz, Klein, Taylor(1996)의 경우, 직업결정의 상황에서 필요한 탐색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효능감이 낮을수록 직업결정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김선중, 2005).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진로선택과 실행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Hackett & Betz, 1981)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준이 진로와 관련된 변인 중 가장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ackett & Lent, 1992).

진로준비행동과 유사변인인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양기중(2015)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직업탐색활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직업탐색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또한 직업탐색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대환을 찾는 시간이 단축되며, 진로결정시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종찬, 홍아정(2012) 연구에서 취업준비특성은 대학생이 취업을 위하여 개개인이 준비하는 다양한 진로준비활동을 의미하여,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숙(2003)과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정은희(2013)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관계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정보수집행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황지영(2015)의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원인과 동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옥경(2018) 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도 증가함을 예측하였다. 대학생이 진로결정을 위해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진로준비행동의 촉진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하위요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정보를 찾고 미래 계획이 확실할수록 준비행동들이 늘어나게 하며, 목표의 설정이나 정보수집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진로결정을 잘 했다는 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박선희, 2019). 양진희(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며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클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스스로 진로 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진로 준비를 위한 자기주도적 노력이 지속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백인선, 2018).

이민옥(2018)은 현재까지 청소년이나 4년제 대학생 중심이거나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김옥경,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이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는 진로설계와 진로 또는 취업준비를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 소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최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진로결정행동은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수준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Hackett & Betz(1981)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lustein(1997)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감이 낮은 학생은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Gati et al(2011)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밝혔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aylor & Popma(1990)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 연관성 연구 결과에서, 미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을 밝혔다(송영란, 2007). 이현주(1999)의 연구결과 진로를 미결정한 대학생은 결정한 대학생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게 타나났음을 알 수 있다. Taylor & Betz(1983)는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자기효능감 지수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이 확실한 경우 자기효능감 기대치가 높게 나오고, 자기효능감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진로미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유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개인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진로결정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진선(2001)과 김영상(2009)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의존적 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여선영(2015)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교육선택의 과정이나 개인의 학업성취, 직업흥미 등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수준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로의 방향을 미리 정할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기대가 있다고 하였다(박종명, 2017). 신원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많은 지지와 구체적인 직업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상담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 구성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황지영, 고미나, 201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과업을 수행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진로를 결정하며, 이는 대부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보이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 상담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로준비행동을 현실화하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은 크다. 강정은(2008)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이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미래계획은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미래계획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며, 진로결정수준의 변인 중 진로확신이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 효능감을 상승시킨다는 것

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박선희, 2019). 백인선(2018)은 진로결정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진로결정수준의 진로확신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여주고, 스스로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진로준비를 위한 자기주도적 노력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백인선, 정기수(2018)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와 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이다.

자신의 진로결정수준에 확신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Betz & Klein, 1996; Betz, Klein, & Taylor, 1996; Lent & Brown, 2013; 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불안이나 불편감을 야기시키며, 제대로 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박신영, 이동형, 2013;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김봉환, 김계현(1997)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중 일부는 진로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진로결정과 관련 없는 진로준비행동을 하기도 한다(임은미, 2011). 뿐만 아니라 성급한 진로결정으로 충분히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박기문, 이규너, 2009).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 진로결정 문제와 진로준비행동이 활성화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정미숙, 2015). 자신의 진로결정상태를 확신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며 진로결정과 진로정착을 위한 준비행동의 빈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박선희,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결정방법을 살펴보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상담과 진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의 4개 대학교 재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표본 추출방법으로 비확률 표집 기법 중 편의 표집 유형을 채택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57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중복응답 등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총 559부를 분석(96.1%)에 사용하였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59)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00	35.8
	여	359	64.2
학년	1학년	202	36.1
	2학년	188	33.6
	3학년	105	18.8
	4학년이상	62	11.1
	졸업유예자(수료포함)	2	0.4
전공계열	인문계열	82	14.7
	사회계열	109	19.5
	자연계열	85	15.2
	공학계열	50	8.9
	사범계열	18	3.2
	예체능계열	58	10.4
	보건·의료계열	90	16.1
	기타	67	12.0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Ⅲ-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 결과 남성은 200명(35.8%), 여성은 359명(64.2%)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202명(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188명(33.6%), 3학년 105명(18.8%), 4학년이상 62명(11.1%), 졸업유예(수료생) 2명(0.4%)순으로 분포하였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계열 82명(14.7%), 사회계열 109명(19.5%), 자연계열 85명(15.2%), 공학계열 50명(8.9%), 사범계열 18명(3.2%), 예체능계열 58명(10.4%), 보건·의료계열 90명(16.1%), 기타 67명(12.0%) 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진로준비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 16문항을 이명숙(2003)이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척도에 2문항(8번, 12번)을 추가 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Ⅲ-2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559)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보수집행동	1, 2, 3, 8, 9, 17	6	.763
도구준비행동	4, 5, 13, 14, 15	5	.752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	6, 7, 10, 11, 12, 16, 18	7	.803
전체		18	.887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문항은 총 18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박숙경(2013)의 선행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표Ⅲ-2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정보수집행동의 Cronbach's α 는 .76, 도구준비행동의 Cronbach's α

는 .75,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의 Cronbach's α 는 .80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되었다.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Betz, Klein & Taylor(1996)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인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조아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표Ⅲ-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559)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평가	5, 9, 14, 18, 22	5	.792
목표설정	2, 6, 11, 16, 20	5	.820
직업정보	1, 10, 15, 19, 23	5	.722
문제해결	4, 8, 13, 17, 25	5	.733
미래계획	3, 7, 12, 21, 24	5	.822
전체		25	.93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문항은 총 25문항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김윤성(2018)의 선행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3로 나타났으며, 표Ⅲ-3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자기평가의 Cronbach's α 는 .79, 목표설정의 Cronbach's α 는 .82, 직업정보의 Cronbach's α 는 .72, 문제해결의 Cronbach's α 는 .73, 미래계획의 Cronbach's α 는 .82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다. 진로결정수준 척도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Osipow, Carney, Winer(1980)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 CDS(Career Decison Scale)를 고향자(1992)가 우리 문화에 맞게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Ⅲ-4 진로결정수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559)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진로 및 전공선택의 확신	1, 2	2	.840
진로 미결정 정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6	.899
전체		18	.900

* 역채점 문항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며, 총 18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처음 2개의 문항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체 조건을 확인한다. 1, 2번 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3~18번 문항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미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계처리 과정에서 3~18번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이민옥(2018)의 선행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Ⅲ-4와 같이 Cronbach's α 는 .90으로 확인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 R 3.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요인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하였다.

셋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들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 분석 후 매개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Sobel(1992)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결과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유의미한 매개효과라고 판정한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기술통계 (N=559)

변수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준비 행동	정보수집 행동	3.37	0.74	-0.31	0.10
	도구준비 행동	3.15	0.80	-0.21	0.17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	2.68	0.77	0.18	-0.02
	전체	3.04	0.65	-0.09	0.2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3.53	0.66	-0.09	0.44
	목표설정	3.55	0.72	-0.05	-0.13
	직업정보	3.41	0.67	-0.14	0.27
	문제해결	3.46	0.64	0.04	0.12
	미래계획	3.29	0.75	-0.13	0.16
	전체	3.45	0.59	-0.03	0.50
진로결정수준	진로 및 전공선택의 확신	3.31	0.92	-0.21	-0.29
	진로 미결정 정도	3.25	0.69	-0.03	0.05
	전체	3.26	0.66	0.10	-0.31

표IV-1에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의 평균은 3.37, 도구준비행동의 평균은 3.15,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의 평균은 2.68로 정보수집행동이 가장 높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의 평균은 3.53, 목표설정의 평균은 3.55, 직업정보의 평균은 3.41, 문제해결의 평균은 3.46, 미래계획의 평균은 3.29로 목표설정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3.26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정규성 검증에 활용되는 지표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으며, 절대값 3 미만의 왜도값과 절대값 7 미만의 첨도값을 갖는 경우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가정할 수 있다(Kline, 1998).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변수 모두 해당 범위에 분포하며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175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수준간의 상관관계 .275,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간의 상관관계 .163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인 진로준비행동과 종속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59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매개변인 진로결정수준과 종속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39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IV-2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N=559)

	1	1-1	1-2	1-3	2	2-1	2-2	2-3	2-4	2-5	3	3-1	3-2
1 진로준비행동	1												
1-1 정보수집행동	.852***	1											
1-2 도구준비행동	.829***	.604***	1										
1-3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	.873***	.593***	.574***	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91***	.584***	.502***	.441***	1								
2-1 자기평가	.507***	.514***	.429***	.369***	.903***	1							
2-2 목표설정	.483***	.501***	.405***	.344***	.872***	.771***	1						
2-3 직업정보	.562***	.544***	.460***	.443***	.850***	.709***	.675***	1					
2-4 문제해결	.394***	.357***	.379***	.287***	.773***	.644***	.566***	.523***	1				
2-5 미래계획	.592***	.587***	.486***	.452***	.906***	.772***	.726***	.754***	.628***	1			
3 진로결정수준	.175***	.275***	.163***	.036	.391***	.374***	.461***	.284***	.153***	.390***	1		
3-1 진로 및 전공선택의 확신	.563***	.520***	.462***	.461***	.668***	.598***	.650***	.552***	.417***	.644***	.508***	1	
3-2 진로 미결정 정도	.095**	.209***	.099**	-.038	.309***	.303***	.387***	.213***	.095**	.312***	.990***	.379***	1

*** $p < .001$, ** $p < .01$

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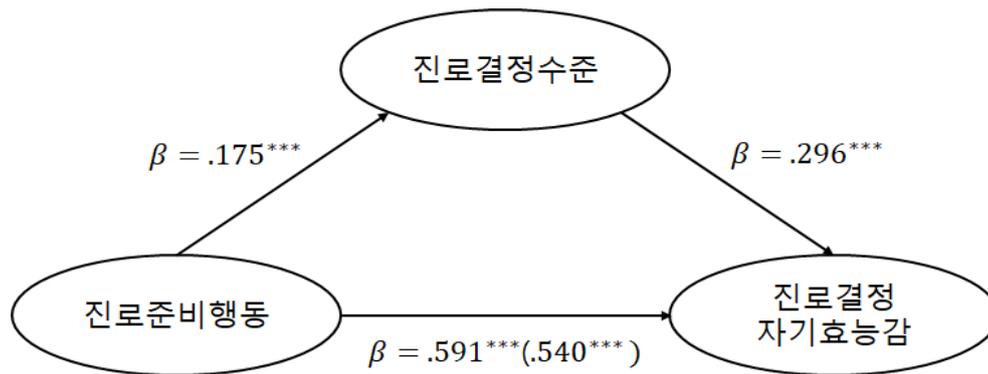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IV-3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beta=.175,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beta=.591, p<.001$)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beta=.296,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에서의 진로준비행동($\beta=.591$)보다 3단계 진로준비행동($\beta=.540$)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IV-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N=559)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진로준비행동 → 진로결정수준	.031	11.644***	.176	.042	.175	20.960***
2	진로준비행동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50	299.730***	.536	.031	.591	17.310***
3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34	213.166***	.489	.029	.540	16.663***
	Sobel Z 통계량 Z=3.817			비표준화 계수 B(a)=.176, 표준오차 SE(a)=.042 비표준화 계수 B(b)=.268, 표준오차 SE(b)=.029			

*** $p<.001$



그림IV-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추가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Z값이 1.96보다 크고 2.54보다 작으면 $p=.05$ 에서 유의한 것이며, Z값이 2.54보다 크면 $p=.001$ 에서 유의한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Z=3.817(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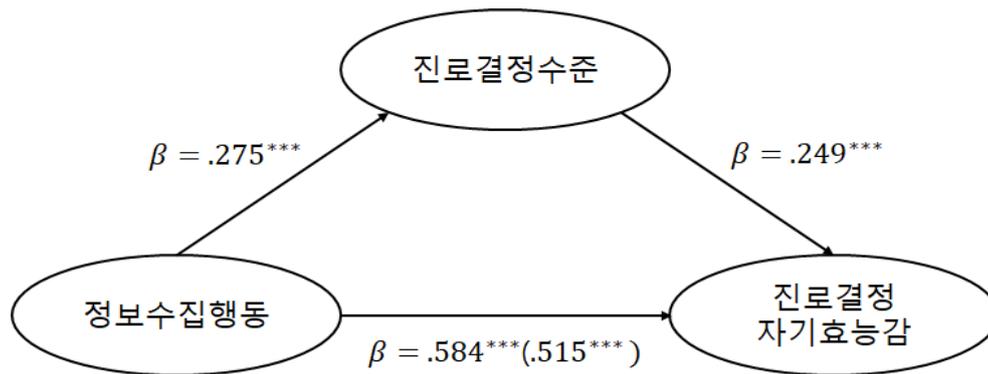
가. 대학생의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표IV-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N=559)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정보수집행동 → 진로결정수준	.076	45.539***	.245	.036	.275	6.748***
2	정보수집행동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70	288.110***	.470	.028	.584	16.970***
3	정보수집행동,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98	183.794***	.415	.028	.515	15.063***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계수 B(a)=.245, 표준오차 SE(a)=.036					
Z=4.949		비표준화 계수 B(b)=.225, 표준오차 SE(b)=.031					

*** $p < .001$



그림IV-2 대학생의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보수집행동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beta=.275, p<.001$)하여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보수집행동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beta=.584,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beta=.249,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정보수집행동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beta=.515, p<.00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Z값이 4.949($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은 정보수집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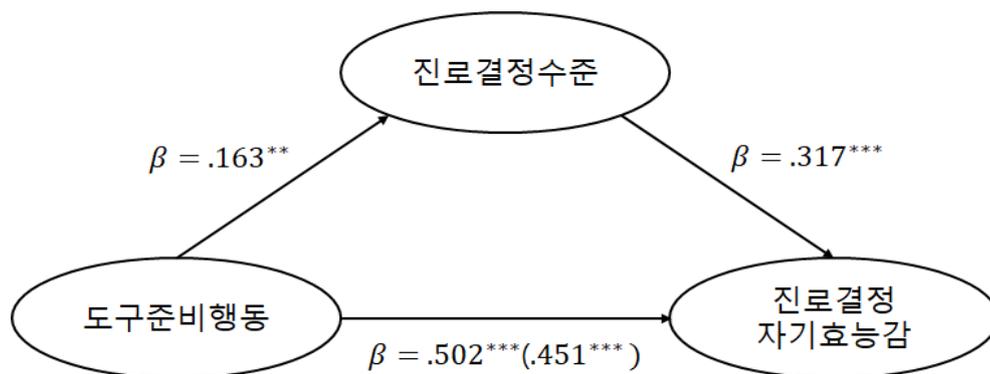
나. 대학생의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표IV-5는 대학생의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표IV-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N=559)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도구준비행동 → 진로결정수준	.027	15.282***	.133	.034	.163	3.909***
2	도구준비행동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2	187.980***	.371	.027	.502	13.710***
3	도구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50	149.692***	.332	.026	.451	13.00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계수 B(a)=.133, 표준오차 SE(a)=.034					
Z=3.595		비표준화 계수 B(b)=.287, 표준오차 SE(b)=.031					

*** $p < .001$, ** $p < .01$



그림IV-3 대학생의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도구준비행동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beta=.163, p<.01$)하여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도구준비행동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beta=.502,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beta=.317,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도구준비행동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beta=.451, p<.00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Z값이 3.595($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은 도구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대학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검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하며,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지각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진로결정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백인선(2018)의 연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명숙(2003)의 연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김선중(2004)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되어있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명옥(2011)의 높은 진로준비행동과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대부분 많은 대학에서 진로준비는 직업정보 안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진로준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진로준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진로교과목 운영과 진로상담,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대학생들이 진로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진로상담자들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민과 탐색을 통해 다양한 진로준비가 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고 만족스런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이 있어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결정 대학생이 진로미결정 대학생보다 진로의사결정효능감이 높다는 이현주(2000)의 연구와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목표설정,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이민옥(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Taylor와 Betz(1983)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원(2015)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의 진로목표를 위해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민정, 김봉환(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진로결정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의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다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의 연구는 대부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김수리, 2005; 김선중, 2005; 조명실, 최경숙, 2007; 이정애, 2009).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행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승 요인이며, 더 나아가 자신감 있게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를 찾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옥경, 2018).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박선희, 2019), 자신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진로준비행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원민정(20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로준비가 되어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촉매제로 제공해준다면, 진로 미결정 대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아져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진로설계 및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을 통해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정보준비행동과 도구준비행동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정보준비행동이 도구준비행동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수집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능력, 적성, 흥미 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인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로상담사는 사전 진로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정보탐색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고 다양한 도구준비행동 제공하며, 직업에 대한 다양한 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은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정한 진로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목표달성활동이 진로결정을 확신하는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 및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감 등이 없는 경우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서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정한 진로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행시 다양한 사례 제시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진로결정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더욱더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효과로 볼 때,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에게 진로준비 및 결정에 대하여 상담 진행시, 진로준비행동의 유형 파악과 그 유형에 맞는 차별적인 접근 방법 등을 제시한다. 즉, 개개인의 진로현실과, 준비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담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선행연구에 대해 학문적으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진행한 연구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들의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학교 유형 및 지역적 특성,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년과 계열 및 전공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취업에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4학년 이상이거나, 보건계열과 같은 취업과 관련된 학과의 재학생들인 경우 진로가 사전에 결정되어 응답하게 되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학년, 계열 및 전공 등의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면,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기에 측정상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및 프로그램,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하위요인으로 보았을 때,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이 진로결정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취업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대상 맞춤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한다.

VI. 참고문헌

- 강신영(2011).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필, 고정리.(2018). 대학생이 인식한 심리적 및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439-468.
- 고대석(200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서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옥(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16).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자기격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순(2004).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김봉환(2006).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1), 311-333.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중(200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진로장벽의 관계유형과 진로자기효능감, 희망, 삶의 의미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8(4), 75-99.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상(2009). **대학생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경(2018). **대학생의 경력계획,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성(2018).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지·정신영·김지애·김지윤·이동귀(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3(4) 971-993.
- 김정화(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9(2), 417-442.
- 김중운, 박성실(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 김지희(2017). **항공서비스 전공자의 취업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장기명, 이난(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1), 261-278.
- 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기문, 이규녀(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의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 103-127.
- 박선희(2019).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2015).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경(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이동형(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32(1): 23-38.
- 박완성(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아(2011).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명(2017).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인선(2018).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수준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인선, 정기수(2018).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수준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1), 457-477.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영란(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원애(2016)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의 관련성. 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20(4), 213-238.
- 신중원(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2007).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선영(2015).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 원민정(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27-136.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옥(2018). **전문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길(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애(2005).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정애(2009).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직업획득가능성이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 홍아정(201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교육학연구**, 50(3), 177-206.
- 이현주(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향식 차이, **한국교육학회**, 38(1), 235-257.
- 이혜정(2017). **직업전문학교 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임은미, 장선숙 (2004).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효과 :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18(4), 139-143.
- 전미리, 김봉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정미숙(2015). **여과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선, 박미연(2017). 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8(4), 165-183.
- 정윤경(2019). **진로지원 시스템 현황과 개편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은희(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선(200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애(2005). **지각된 가정환경양식이 남·여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 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 조현재(2014). 대학생의 개인특성이 진로미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3(4), 103-127.
- 조현재(201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30(2), 63-80.
- 지이래(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화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 홍지영(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353-374.
- 홍미진(2012). **항공사 객실승무원 취업준비생의 직업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미, 신현숙(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229-245.
- 황지영(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지영, 고미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4(2), 135-15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7). *The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 Baron, Reuben M. and Davi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z, N. E., Klein, K. I.,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Gati, I., Asulin-Peretz, L., & Fisher, A.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 3-year follow-up*. The Counseling Psychologist.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43, 510-526.
- Hackett, G., & Lent, R. 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Roenkae, A., & Pulkkinen, L. (1995).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81-391.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인크루트, 대학생 휴학을 하는 이유 1위 '취업 준비 위해', 평균 휴학 기간은?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80123.](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80123.html)

html 2019.3.4. 인출.

잡코리아, 알바몬, 4년제 대학생 절반 “진로 아직 결정 못 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10266&code=61141111&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10266&code=61141111&cp=nv)

2019.8.16. 인출.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Kim Seo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iversity student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developing a program to help university students have confidence in their career decision and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 a method to enhance thei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in providing career and employment programs,

career counseling, etc.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attending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559 out of the 578 answer sheets, after excluding 19 poorly or improperly answered responses, were used for the study. Tools used for analyses includ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developed by Kim Bong-hwan (1997) to examine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n revised by Lee Myung-sook (2003);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 developed by Betz, Klein & Taylor (1996) and adapted by Cho A-mi (2000); and the Career Decision Scale (CDS) developed by Osipow, Carney, Winer, et al. (1980) and adapted by Koh Hyang-ja (1992). The R 3.6.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and the Sobel test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significance after performing a factor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and a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and a positive correlation was confirmed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cond,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rd,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formation preparation behavior and tool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with career decision level.

Based on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proactive university students who

perceive hig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 hi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career counseling and programs to help them increas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develop confidence in their career decision. In addition, this study implies the necessity of providing a range of information and developing career and employment programs for a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and programs provided for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choosing and preparing for future careers.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진로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 문항을 잘 읽고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에 따라 부담 없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에서 조사된 사항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자 : 김 선(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ssunny1853@naver.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의 통계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다음은 자신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번호에 V표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5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5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5
4.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1	2	3	4	5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1	2	3	4	5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1	2	3	4	5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1	2	3	4	5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지원실 또는 고용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1	2	3	4	5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1	2	3	4	5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5

2. 다음은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결정해서 V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1	2	3	4	5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나는 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1	2	3	4	5
7. 지금까지 나는 진로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1	2	3	4	5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	2	3	4	5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1	2	3	4	5
12. 나의 전공 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 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1	2	3	4	5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가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	2	3	4	5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이(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1	2	3	4	5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	2	3	4	5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다음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자신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V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3.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5
4.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5
6.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8.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0.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1	2	3	4	5
11.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1	2	3	4	5
1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4.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나는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2	3	4	5
15.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16. 진로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7.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8.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를 구분해 낼 수 있다.	1	2	3	4	5
19.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20.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1	2	3	4	5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23. 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4. 취업면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25.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2	3	4	5

4. 다음 항목들은 전체 조사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항목으로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전공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자연계열 (4) 공학계열 (5) 사범계열
(6) 예술·체육계열 (7) 기타 ()

3.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이상 (5) 졸업유예자 (6) 수료생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